



STUDENT CREATIVITY
-KOREAN-

Dayeon Lee

술 권하는 사회에서의 소통 부재

Grade 8

술 권하는 시대에서의 소통 부재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에서 남편은 서울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일본유학을 다녀온 지식인이지만 정작 조국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쓸 곳이 없었다. 그리고 아내는 사회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의 부재를 보여주는 인물로, 고학력의 남편과 계속 갈등한다.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 때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많으니 아내의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내의 무지와 그로 인한 좁은 사고는 남편과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이 책에서 새벽 한시가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바느질을 하고있던 아내가 바늘에 손톱 밑을 찔리게 된다. 그리고 아내의 손톱에는 앵두빛 피가 났다. 앵두빛 피를 매개로 아내는 결혼을 하고 바로 유학을 떠났던 남편을 회상한다. 유학을 떠난 남편에게 오랜 세월동안 아주 큰 기대를 하며 기다렸지만 막상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기대와 생각과 아주 달랐다. 아내 기준에서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고 다녔기 때문이다. 남편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사회에 절망한 지식인을 상징한다. 작품에서 술이라는 소재는 안 좋은 일들은 잊히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절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아내와 아내의 기대와 거리가 먼 행동과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하는 남편에게는 단절과 갈등만 있을 뿐이다.

시대적 비극과 술을 권하는 사회가 가진 모순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당시 우리 민족의 갈등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시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Dayeon Lee (이다연)

Grade 8 Korean

Gunho Ro

어두워진 바다

Grade 7

어두워진 바다

최근에 어머니와 형과 함께 일광 해수욕장 근처의 유명한 빵집인, 칠암사계(七岩四季)에 갔었다. 빵집에서 빵을 먹은 뒤, 일광 해수욕장에 들렀다. 일광바다는 기장 지역 북쪽끝에 있는 바다로 길이는 4리, 너비는 25m 정도가 되는 매우 조용한 곳이었다. 눈에 보이는 바다물이 맑고 푸른빛이었고,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바닷가에서 1시간 정도 놀며, 해질 무렵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수평선을 넘어갈 때는 바다가 마치 해를 삼키는 느낌이었다.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이 좀 더 제대로 관리된다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바다에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며 일광 바다를 떠올려봤다.

보석 같은 푸른바다여 어찌하여 더러워졌는가
바다는 나를 가리켰다.
결국은 사람의 잘못이다.
버려진 쓰레기는 치워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미안한 눈이 바다를 향해 있다.
바다는 잔잔하고 조용했다.

Gunho Ro (노건호)
Grade 7 Korean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보여주는 세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마저 차단되어 있다. 나는 어쩌면 이것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 하면,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적 진보는 인간에게 진정한 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회가 삭막해졌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과학 기술의 세상은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을 고민하게 한다.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기술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된다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을 작품 전반에 걸쳐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특정 기준에 맞추는 법을 배워서 행복해지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작품에서 헬름홀츠는 이를 깨닫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고, 멋진 신세계에서 스스로 추방된 사람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멋진 신세계는 과학기술 발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선진 기술이 적용된 멋진 신세계는 식민화와 같은 부정적인 곳으로 그리고 있다. 작가는 미래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편리한 삶을 위해 창조된 기술들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임을 멋진 신세계를 통해 보여준다.

정월대보름 첫 보름에 시를 쓰고 수다를 떨며 쥐불놀이를 즐기던 조선시대와 고속의 발전된 과학 기술을 가진 현대의 행복의 양이 크게 다를지에 대해 생각했다. 현대에도 기술이 선진화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고도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유엔이 발표한 데이터 4에 따르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기술 선진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류에게 더 큰 행복을 주려는 것이라는 과학기술의 주장이, 과연 그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 작품이었다.

Gunmin Ro (노건민)

Grade 10 Korean

작품 서평 - 오상원의 유예

오상원의 "유예"는 총살을 앞둔 국군 소대장의 죽음 직전에 주어진 1시간의 유예를 통해 인간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해보며, 극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조명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배경은 6.25 전쟁 중 1시간이라는 삶의 유예 시간이며 소설 속에서 자주 묘사되는 배경인 하얀 눈이 피와 대조를 이루며 작품 전체의 배경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소설의 특징은 묘사되는 시점이 두개이다. 인물의 내면 심리나 개인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죽음 이후의 시점을 3인칭으로 하여 효과적인 시점 전달을 취하고 있다.

이 소설은 국군 소대장인 '나'가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움 속에 갇혀 총살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벌어진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나'는 부대원들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북으로 진격하다가 부대가 전멸하고 혼자 살아남게 된다. 혼자 눈밭에서 떠돌다가 들른 마을에서 인민군들이 야군 병사를 총살하려는 것을 보고 적의 사수를 향해 총을 쏘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된다. 포로 심문 과정에서 인민군이 끊임없이 회유하지만 거절하고 죽음을 택한다. 유예 시간이었던 한 시간이 지난 후 끌려 나와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눈 쌓인 길을 걸어 가다가 뒤에서 쏜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이 소설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적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소대장이었다. 1시간이라는 유예 시간을 두고 죽음을 무의미하다고 받아들이며 끝까지 자신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는 소대장의 정신이 나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묘사한 배경 중, 하얀 눈이 전우의 피, 나중에는 '나' 자신의 붉은 피와 대조되게 하여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비극성이 더욱더 강조되게 한다. 많고 많은 희생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얀 눈이 인간 생명의 중요함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차디찬 무관심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흰 눈은 인간이 그저 하나의 전쟁의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만 비극성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이처럼 나 또한 흰 눈이 이 작품에서 의미하는 것은 절망이라고 생각한다. 소대장이 부하들을 눈 밭에서 잃고 혼자 떠돌아다니며 걷고 걸어도 흰 눈밭 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말이다. 수많은 부하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하나 변하지 않는 흰 눈을 보며 죽음이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인간의 인생에서 죽음이란 피하고 싶은 순간이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소대장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전쟁에서 죽음의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을 의미한다. 그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의 의지가 없는 삶의 지속 대신 죽음의 선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소대장은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삶의 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전쟁'과 같은 비극적 상황, 한 사람의 인생에서 '죽음'이 매우 큰 의미가 되지 못하는 비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가치와 인간답게 사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Yunsung Oh

작품의 시공간-오르한 파묵과 이스탄불

Grade 12

작품의 시공간 - 오르한 파묵과 이스탄불

『이스탄불-도시와 추억』은 200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의 자전적 수필집이다. 이스탄불은 작가의 영혼에 대한 하나의 캐릭터이자 서사일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었다. 오르한 파묵의 모든 소설에서 이스탄불은 밝고 긍정적이며 즐거운 곳으로 취급되지 않지만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름 아닌 이스탄불일 것이다.

이 작품은 고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태어나고 자란 위대한 작가의 어린 시절과 청춘이 도시의 불행, 폐허, 몰락, 번두리의 이미지와 잘 얹혀 있는 텍스트이다. 장엄한 사찰, 거대한 역사적 건축물, 도시의 시간이 물씬 풍기는 우아한 목조 별장은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워하게 한다. 파묵은 위대한 과거처럼 현재를 살라는 키워드를 긍정적으로 승화했다. 오스만 제국의 장엄한 유산, 아름다운 보스포로스 해협, 도시 곳곳에 남아 있는 유물 등 구시가지의 활력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낡고 잊혀진 이스탄불의 몰락이었다. 도시를 뒤덮고 있는 것은 감정과 가난, 폐허로 인한 슬픔이지만, 그는 이 우울한 이스탄불의 조각을 마음에 품고 이스탄불이 그의 문학과 삶의 중심임을 강조한다.

이스탄불의 삶에서 벗어나 독서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서방세계를 여행했지만, 이제 나에게 세상의 중심은 이스탄불이다. -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오르한 파묵

슬픔, 우울, 우울, 우울, 깊은 슬픔, 우울, 우울 등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들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며, 파묵에 따르면 그것은 이스탄불 정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감정이다. 그는 몰락한 제국이 남긴 슬픔을 안겨주었고, 가슴 아픈 기억들로 가득찬 물건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허둥거리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한다. 갑자기 죽은 아름다운 애인이 남겨 놓은 파멸적인 추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옷, 장신구, 물건, 사진 등을 다급하게 버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강하고 새로운 것, 서구적 혹은 토착적인 현대적 세계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노력은 더더욱 과거를 지우는 셈이 되었다고도 말한다. 파묵의 자전적 수필과 글쓰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통해, 작가와 시공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Yunsung Oh (오윤성)
Grade 12 DP Korean A